

# 청년 귀농인에 문턱 확 낮춘 '농지은행'

### 광주·전남 20~30대 지원 건수 매년 늘어...5년 새 2배 ↑ 후계농업인·청년귀농인 우선 지원...최저 임차료만 부담

정부가 이달부터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을 늘리는 등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청년 영농창업과 귀농 수요가 늘어날 지 주목되고 있다.

1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농지은행 지원면적은 총 2543.22ha로 나타났다.

전남본부가 지원한 경영농지 면적은 2014년 2891.54ha→2015년 2836.03ha→2016년 3465.78ha→2017년 4103.02ha→2018년 3035.83ha→올해 8월 말 2543.22ha로 집계됐다.

청년 농업인의 문턱을 낮추려는 취지에 맞게 20~30대 지원 건수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2014년 369건(지원면적 442.81ha)이었던 지원 건수는 2015년 512건(524.19ha)→2016년 53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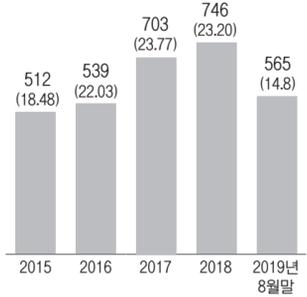
(763.56ha)→2017년 703건(975.27ha)→2018년 746건(704.23ha)으로 5년 새 2배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청년에게 지원된 농지은행 경영농지 면적은 376.72ha(565건)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청년 지원 건수는 늘고 있지만 농지은행 지원율은 20%대(연 평균 19.5%)에 머무르고 있다.

올해 청년에게 지원된 농지은행 사업을 부문별로 보면 '공공임대용 농지임대'가 87건(75.82ha)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매매 76건(46.74ha) ▲농지임대차 40건(44.14ha) ▲과원매매 8건(9.4ha) ▲과원임대차 1건(2.64ha)이 뒤를 이었다.

농지은행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 1990년부터 시행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지 규모화

■ 광주·전남 청년 농지은행 지원 추이  
(단위:건, 전체 면적 대비 비율은 %)



(매매) ▲과원 규모화(매매)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고령 농업인 대상 농지연금 지급 ▲경영이양 직접지불(1ha당 25만원) ▲농지임대 수탁사업 등이 있다.

농지은행 사업은 청년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 선정자와 20~30대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시·군별 임차료

의 최저가 평균치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농지은행 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비싼 농지가격으로 부담을 느끼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올해 공공임대 비축농지 지원 예산을 36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2억원 늘리고 비축농지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고령·은퇴농 등으로부터만 매입해 온 농지를 비농업인으로부터도 매입하고, 매입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농지 매입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농의 밭 매입 확대를 위해 1000㎡ 이상으로 정한 농지 임대 수탁 면적 제한도 폐지한다.

신민호 전남본부 과장은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귀농인 등 예비농업인은 농지은행포털(fbo.or.kr)에서 필요한 농지를 검색해 임차·매입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해수부, 9월의 수산물 꽃게·새우 선정



(주)광주신세계는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햇꽃게를 지하 1층 푸드마켓 수산코너에서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전남 롯데·이마트 최대 40% 할인 행사

해양수산부는 9월 '이달의 수산물'로 꽃게와 새우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꽃게는 단백질과 칼슘, 미네랄, 비타민A가 풍부한 고단백·저지방 식품이며 새우는 키토산과 칼슘, 타우린이 많이 들어 있어 고혈압 예방과 성장 발육에 좋다. 해수부는 꽃게와 새우를 광주·전남 17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에서 20~

40%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온라인수협쇼핑(shshopping.co.kr)과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수산시장에서도 오는 30일까지 시중 가격보다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주)광주신세계는 지하 1층 푸드마켓 수산코너에서 햇꽃게를 100g당 28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해수부는 꽃게와 새우를 이용한 간편 요리인 '게살 땅콩 잼 수프'와 '콩물 새우 푸딩'의 조리 과정 동영상도 '만개의 레시피'와 '어식백세 블로그'에 게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식품 정보 활용사례

### aT, 공모전 우수작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30일 서울 aT센터에서 '2019년 aT 공공 저작물 대국민 활용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aT가 사용 개방 중인 식품산업통계정보(FIS-atfis.or.kr)와 각종 연구보고서 등 공공저작물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실제 활용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 결과, aT의 국내 소비시장 상황과 소비자 동향자료를 분석·활용한 '소형 카페를 위한 음료제조용 키트 개발 성공사례'를 응모한 손지혜(최우수상)씨를 비롯한 7건의 아이디어가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백희준 기자 bhj@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아프로' 8기 발대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9일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아프로' 8기 발대식을 열었다. 단원 36명은 3개월 동안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등 농식품 수출국 7개국에서 인턴십을 받는다. (aT 제공)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광주 66.7%·전남 95.4%

### 광주, 16개 시·군 가운데 15번째 전남, 부산 이어 2번째 높은 진행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년을 앞두고 전남 지역 적법화 진행률은 95.4%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88.9%보다 높았고 부산(10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진행률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지자체 부단체

장 등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달 15일 기준 전남지역 관리농가 4693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42.6%)와 진행(52.8%)를 합쳐 95.4%로 집계됐다.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는 폐업예정인 160곳과 관망하는 9개 등 169곳(3.6%)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진행률은 66.7%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번째로 나타났다. 광주에는 12개 관리농가가 있는데 이들 중 4개만 인허가 절차를 마쳤다. 전국 진행률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쳐 88.9%로 집계됐다. 미진행률은 11.1%였다.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 종료일 9월27일에서 기간을 더 주기로 했다. 27일 기준 축량 완료, 견폐율 초과 부분 철거, 설계도

면 작성 등 위반 요소를 없애고 적법화를 진행하는 농가가 그 대상이다. 지자체는 매달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27일까지 축산농가들로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1년 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적법화 과제로는 타인의 토지 침범 부분을 사전 철거하는 '견폐율 초과부분 철거'와 '퇴비사 설치'가 있다.

정부는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전달교육'을 진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

## 나주 상남마을, 행복마을 콘테스트 우수마을 장관상

### 농식품부, 전국 20곳 선정

나주 상남마을 등 전국 20개 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 '6회 행복마을 만들기 경연대회'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8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마을주민 등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회 행복마을 만들기 경연대회'를 열고 전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20개 우수마을을 선정했

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2797개 마을이 참가해 지난 7월 한 달간 예선과 현장평가를 거쳤다.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부문에서 입선한 나주 상남마을에는 20년간 15가구가 귀촌해 총 63가구가 어울려 살고 있다. 주민들은 꽃길과 꽃동산 조성을 조성했다. 상남마을에는 장관상과 함께 10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어촌공 전남본부, 품질분임조경진대회 금·은상 수상

### 현장개선·사무간접 분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종호)는 지난 29일까지 닷새간 경남 거제시에서 열린 '45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현장개선·사무간접 2개 분야에 참가해 최고상인 금상, 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계의 전국제전'으로 불리는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는 삼성전자, 한국전력공사 등 총 298개 분임조, 30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산업통

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경남도, 거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 주관했다. 전남본부는 이날 현장개선 부문에서 '콘크리트 수로구조물 시공방법 개선으로 부적합건수감소'라는 주제로 품질개선 활동을 발표해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무안신안지사·해남완도지사가 함께 발표한 '농업용지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고객만족 향상'은 사무간접 은상에 선정됐다. /백희준 기자 bhj@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Modern

**클래식 스타일** Classic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